

효성, 타이어코드 강화로 이익증가

2008년 영업이익 72.1% 증가해 4104억원 ... PP 특화제품도 호조

효성이 2008년 전 사업 부문에 걸쳐 고른 성장세를 나타냈다.

효성은 2008년 매출이 6조9257억원, 영업이익이 4104억원에 달해 전년대비 각각 27.7%, 72.1% 증가했다고 2월18일 발표했다.

특히, 미국·중동·인디아 등 글로벌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수요시장을 다변화하고, 기술과 생산성 강화를 통해 수익성을 증대시킨 덕분에 중공업 부문에서 매출 1조3720억원, 영업이익 1789억원을 기록했다.

석유화학 부문은 PP(Polypropylene)의 특화제품 판매를 확대하고 필름 사업부문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매출이 30.7% 증가한 1조493억, 영업이익은 17.7% 증가한 691억원을 기록했다.

또 베트남 소재 타이어코드 공장을 본격 가동함에 따라 글로벌 시장지배력이 강화돼 매출이 23.5% 증가한 8846억원, 영업이익은 479.9% 증가한 922억원을 나타냈다.

다만, 섬유 부문은 스판텍스 수요 부진에 따른 판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효성은 앞으로 터키와 베트남 공장 가동으로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스판텍스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크레오라>의 입지를 강화하는 등 차별화제품 판매를 확대해 수익성 증대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2/18>